주목! 이 영화 '죽어도 해피엔딩'

프랑스 영화 '형사에게는…' 리메이크

프랑스의 코믹 잔혹극 '형사에게는 디저트가 없다'를 리메이크한 영화로 '올드 미스 다이어리'를 통해 독특한 연기 세계를 보여준 예지원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칸느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잘 내정된 영화배우 예지원은 기쁨에 들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날, 바람둥이 교포 데니스, 순정파 박감독, 유식한 허풍쟁이 유교수, 무식한 조폭 최사장이 한꺼번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집으로 몰려온다. 하지만 엉뚱한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4명의 남자는 차례차례 죽어 나간다.

여기에 여배우 예지원의 뒤치닥거리 하느라 애가 탄 매니저, 의심많은 형사까지 얽혀들면서 사건은 점점 꼬여만 가고 예지원은 사체를 없애느라 동분서주한다.

탄탄한 연기력의 임원희를 비롯, 정경호, 조희봉, 박노식 등 조연들의 앙상블 연기가 눈길을 끈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애, 베트남전쟁 소재 '님은…' 주연 낙점

MBC 드라마 '9회말 2아웃' 주연을 맡고 있는 수애〈사진〉가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이준익 감독의 새 영화 '님은 먼 곳에'(제작 타이거픽쳐스·영화사 아침)의 주연으로 낙점됐다.

이 영화 배급사인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수애가 '님은 먼 곳에'에서 1971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위문공연단에 들어가는 순박한 시골여자 순이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수애는 이 영화에서 직접 춤과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 10월 태국과 한국에서 5개월간 촬영한 뒤 내년 여름 개봉될 예정이다.

김지수·탁재훈 10년지기 친구로 호흡

김지수가 탁재훈과 함께 10년지기 친구로 호흡을 맞춘다.

김지수와 탁재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어젯밤에 생긴 일'(감독 윤여창, 제작 KM컬쳐)의 남녀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주로 멜로물에 출연하며 단아한 이미지를 자랑해온 김지수는 술만 마시만 '필름이 끊겨'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고뭉치 유진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최근 영화배우로 맹활약하고 있는 탁재훈은 유진의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친구 철진 역을 맡았다. '내 생애 최악의 남자'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영화 '어린 왕자'를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 광주극장, 유럽 영화 대표 감독 2인 특별전

'유럽 영화의 진수를 만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인 루이 말 감독의 작품과 올 7월 사망, 세계 영화팬들을 안타깝게 했던 스웨덴의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루이 말 감독

잉마르 베리만 감독

거장의 숨결을 느끼다

'주제·스타일의 연금술사' 프랑스 루이 말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등

'현대 예술 영화의 원류' 스웨덴 잉마르 베리만

'한여름밤의 미소' 등 7편

▲루이 말 감독 특별전(9월 3일~11일)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진행하는 특별전으로 대표작인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등 모두 9편이 상영된다. 파격적인 주제부터 정치적 소재, 판타지까지 주제와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루이 말 감독의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이번에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여배우 잔느 모로의 매력이 돋보이는 '사형대의 엘리베이터'(1958), 낯선 청년에 반해 사랑의 도피를 하는 유부녀의 이야기를 다룬 '연인들'(1958), 나치의 하수인으로 유태인의 딸을 사랑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루시앙의 청춘'(1974), 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판타지 영화 '블랙문'(1975) 등이다.

또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세자르 영화제 7개부문 수상작인 '굿바이 칠드런'(1987), 깜찍한 거짓말로 어른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지하철의 소녀'(1960) 등도 만날 수 있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브레송이 직접 선곡한 '사형대의 엘리베이터'의 마일즈 데이비스의 재즈음악, '연인들', '굿바이 칠드런'의 브람스, 슈베르트, 바그너의 음악, '도깨비불'의 에릭사티의 음악 등 영화와 어우러지는 배경음악도 깊은 감명을 준다.

▲잉마르 베리만(9월3일~13일)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지가 선정한 위대한 감독 8위에 오르기도 했던 잉마르 베리만은 영화를 통해 삶을 치유하는 영화 철학자, 현대 예술 영화의 원류로 추앙 받아온 인물이다.

이번 특별전의 상영작은 모두 7편으로 칸느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골든글로브, 아카데미상 등 전세계 영화 관련 상들을 거머쥔 작품들이다.

아내와 플라토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가 옛 연인의 집을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한여름밤의 미소'(1955), 십자군 전쟁후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고향 스웨덴에 돌아온 주인공이 '죽음'과 체스 게임을 통해 신으로 부터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야기를 그린 '제 7의 봉인'(1957), 초현실적인 베르만의 영화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연출이 돋보이는 '산딸기'(1957) 등이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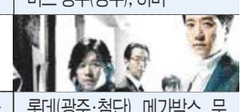
그밖에 '처녀의 샘'(1960), '어두운 유리를 통해'(1961), '외침과 속삭임'(1972) 등을 만날 수 있다.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 연인들 / 지하철의 소녀 / 도깨비불 / 심장의 속삭임

한여름밤의 미소 / 제7의 봉인 / 산딸기 / 가을 소나타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두 사람이다	
강경옥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판타지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	
코믹 연기의 달인 김원희·정준호 주연의 코미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심슨가족 더 무비	
말썽꾸러기 가족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하미 12세 관람가
죽어도 해피엔딩	
예지원 주연의 이색 코미디물.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리 턴	
'수술 중 각성'이라는 소재를 다룬 스릴러물.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서핑 업	
펭귄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전체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판타스틱 4 실버서퍼의 위협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제시카 알바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만남의 광장	
임창정 주연의 코미디물. 교사가 꿈인 영탄은 삼청교육대에 지원한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조디악	
1969년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추리물.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디 워	
심형래 감독이 만든 300억원 규모의 SF 대작.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두 쌍의 젊은 부부가 짝을 바꿔가며 벌이는 연애 행각을 다룬 멜로물.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